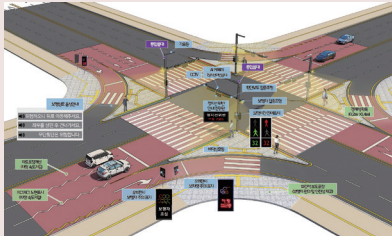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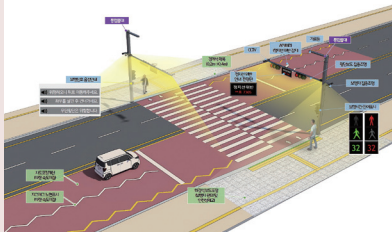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위한 제도 개선

부산시
김기중은부산추진단 보행권증진팀
2022.11.8.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
2022.11.11.



부산시의 횡단보도 디자인 개선 내용 (상, 단일로, 하, 교차로)
출처: 부산시, (2022), 부산 시민 안전을 위한 혁신적인 횡단보도 디자인 개선, 11월 8일 보도자료.

부산시, 시민 안전 위한 횡단보도 디자인 개선 가이드라인 수립

부산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횡단보도 디자인 개선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다. 최근 3년간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무신호 횡단보도에 비해 신호 횡단보도의 사고건수 및 사망자수가 많으며, 횡단보도 사망자의 경우 보행자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월등히 많고, 특히 65세 이상이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스몸비족(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느라 길거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걷는 사람) 등 보행자 신호위반 예방, 도로의 시인성 강화, 노년층 취약 시간대의 교통사고 예방 등을 통해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해나아가기로 하였다.

주요 내용은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 및 안전을 위해 ▲적색등, 녹색등 모두 전체 잔류시간이 표시되는 신호등 설치 ▲눈에 잘 띄는 보도 판석 포장 ▲보도 경계석 폭 확대(20cm→40cm) ▲운전자의 보행자 인지를 위한 보행자 집중조명 설치 등이다. 또한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횡단보도 전 20m가량을 지그재그 차선으로 도색하고, 차량 속도 저감을 위해 미끄럼 방지 포장을 병행하며 정지선 위반 안내(AI카메라), CCTV, 횡단보도 음성 안내 등 스마트 장비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올해는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중구 남포사거리, 동구 부산역 앞 일원, 해운대 영화의 전당 교차로 일원 등 8곳 22개소에 대하여 횡단보도 디자인 개선사업을 우선 시행한다.

제주도, 연동·노형동 등 제주시내 6개 지역서 보행자 안심구간 운영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행정안전부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도·행정시·도교육청·제주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보행자 안심구간(Walking Safe Zone)'과 '개인형 이동장치(PM) 특별 관리구간'을 운영한다.

자치경찰단은 최근 인도와 횡단보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잇따라 사고예방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제주형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종합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안심구간과 특별 관리 구간을 설정하였다. 보행자 안심구간은 공유형 이동장치가 많은 연동, 노형동, 이도2동 등 6개 지역이다.

자치경찰단은 노면과 기둥에 인도·횡단보도 이륜차 주행금지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제주경찰청과 합동으로 보행자 위협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보행자 사고위험이 높은 5개 구간 총 4.9km를 개인형 이동장치 특별 관리구간으로 정하여 표지판 및 도로정비와 함께 사고 예방을 위해 제주경찰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순찰도 강화한다.